

4/4분기 돼지 수급 및 가격 전망



권승현 과장
(축협중앙회 조사부)

1. 사육 동향과 전망

(1) 사육 동향

돼지 총두수는 '96년 6월 현재 640만여 두로 1년 전 같은 달보다는 30만 3천두(5.0%)가 증가하였지만 3개월 전보다는 1만 6천두(0.2%)가 감소하였다. 6월 두수가 3월보다 감소한 것은 예상을 벗어난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돼지 마리수 증감의 가장 큰 요인이 되는 모돈 마

리수는 83만 4천두로 3개월 전보다 5천두(0.6%)가 감소하였고 1년 전 같은 달보다는 9천 두(1.1%)가 증가해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돼지 사육호수는 3만 8천호로 3개월 전보다 3천호(7.3%), 1년 전 같은 달보다는 12천 호(24.0%)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감소 속도가 줄지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동안 계절적인 변동추세를 나타내면서 큰 폭으로 증가하던 사육두수가 지난해 9월부터 6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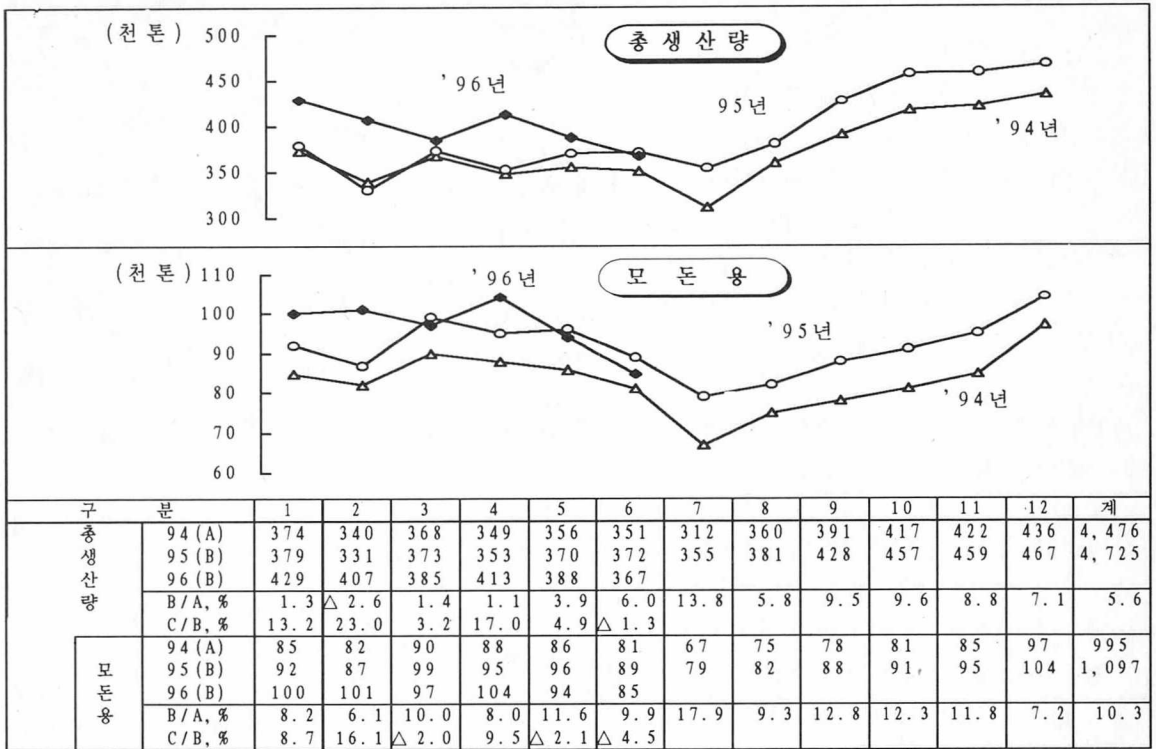
〈표 1〉 돼지 사육호수 및 마리수 변동추세

(단위 : 천호, 천두, %)

구 분		'94.6	'95.3	6 (c)	9	12	'96.3 (b)	6 (a)	증감률	
									(a/b)	(a/c)
사 육 호 수		59	51	50	48	46	41	38	△7.3	△24.0
총 두 수		5,783	5,853	6,099	6,490	6,461	6,418	6,402	△0.2	5.0
월 령 별	2개월 미만	1,782	1,805	1,860	2,035	1,891	1,958	1,965	0.4	5.6
	2~4개월령	1,985	1,901	2,109	2,191	2,228	2,135	2,147	0.6	1.8
	4~6개월령	1,194	1,283	1,238	1,370	1,448	1,421	1,390	△2.2	12.3
	6~8개월령	71	84	85	79	79	78	72	△7.7	△15.3
	8개월 이상	751	780	807	815	815	826	828	0.2	2.6
모 돈 수	6~8개월령	60	75	74	67	68	68	60	△11.8	△18.9
	8개월 이상	698	725	751	760	760	771	774	0.4	3.1
	계	758	800	825	827	828	839	834	△0.6	1.1
규모별 ¹⁾ 두수 비중	500두 미만	48.2	42.3	40.4	39.0	37.9	35.9	34.2	△1.7	△6.2
	500~999두	23.8	25.6	26.0	26.3	25.6	25.6	26.2	0.6	0.2
	1,000~4,999두	19.3	23.3	24.5	25.5	27.5	28.6	29.9	1.3	5.4
	5,000두 이상	8.6	8.8	9.1	9.1	9.0	9.9	9.8	△0.1	0.7
호당 사육두수(두)		98	115	122	135	140	157	168	7.0	37.7
총두수전년대비증감률 ¹⁾		3.5	2.2	5.5	12.2	8.5	9.7	5.0	△4.7	△0.5

주 : 1)의 증감률은 차이를 나타낸 것임.

〈표 2〉 양돈용 배합사료 생산동향



자료 : 농림수산부

만두 대에서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전업화, 규모화의 진전으로 500두 이상 규모의 비중이 커짐과 동시에 가구당 사육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그 만큼 소규모 농가의 폐업도 가속화 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양돈용 배합사료 생산량은 4월까지의 1,634천 톤으로 지난 같은 기간보다 13.7% 증가하였지만 5월 이후는 줄어들어 6월에는 지난 해보다 1.3%가 감소하였다. 모돈용 사료도 5월과 6월에는 지난 해보다 각각 2.1%와 4.5%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감소한 이유는 4월 사료값 인상과 국제 사료곡물 가격의 계속되는 강세로 양돈사육 전망을 불투명하게 본 나머지 양돈농가들이 돈가가 좋은 5~6월에 많이 처분한 결과로 추정된다.

(2) 사육 전망

앞으로 돼지 사육마리수는 6월초(실제치) 640만 마리에서 9월초에는 660만 마리까지 증가했다가 12월초에는 650만여 마리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비슷한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봄철 자돈 생산의 증가와 수태율 향상으로 자연적으로 마리수가 증가할 것이고, 금년 들어 오름세를 보였던 돼지값이 여전히 출하물량 부족과 대일 돼지고기 수출의 호조로 강세를 보임에 따라 양돈농가의 사육의욕이 높기 때문에 두수가 늘어날 요인이 있다. 하지만 사육두수 증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모돈 마리수가 소폭이나마 감소하였고, 사료값 인상과 가축분뇨처리에 대한 부담 등이 소규모 농가의 전업과 폐업을 유도할 것으로 보여 사육마리수의 증가폭은 크게 줄어 정체 현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2. 수급 동향과 전망

(1) 소비 동향

연중 도축두수는 5~7월에 적고 10~12월에는 많은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5~7월이 10~12월보다 약 20% 정도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95년의 도축 총 마리수는 10,179천두로 전년 대비 3.5%가 증가했고 월 평균으로 보면 84만 8천두가 도축된 꼴이다. 평균 도체중은 '90년 90kg에서 꾸준히 늘어 '94년 96kg, '95년 98kg을 나타내고 있으며 최근에는 100kg을 보이고 있다.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70년 2.6kg, '80년 6.3kg, '90년 11.8kg, '95년 14.8kg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당분간 증가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육류 소비량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수입쇠고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54%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96년 6월까지 도축두수는 5,232천 두로 전년 동기 4,811천 두보다 8.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돈육 수출은 6월까지 21,074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347톤보다 232%나 크게 증가하였다. 수입은 7월까지 통관 기준으로 17,500톤 가량 들어온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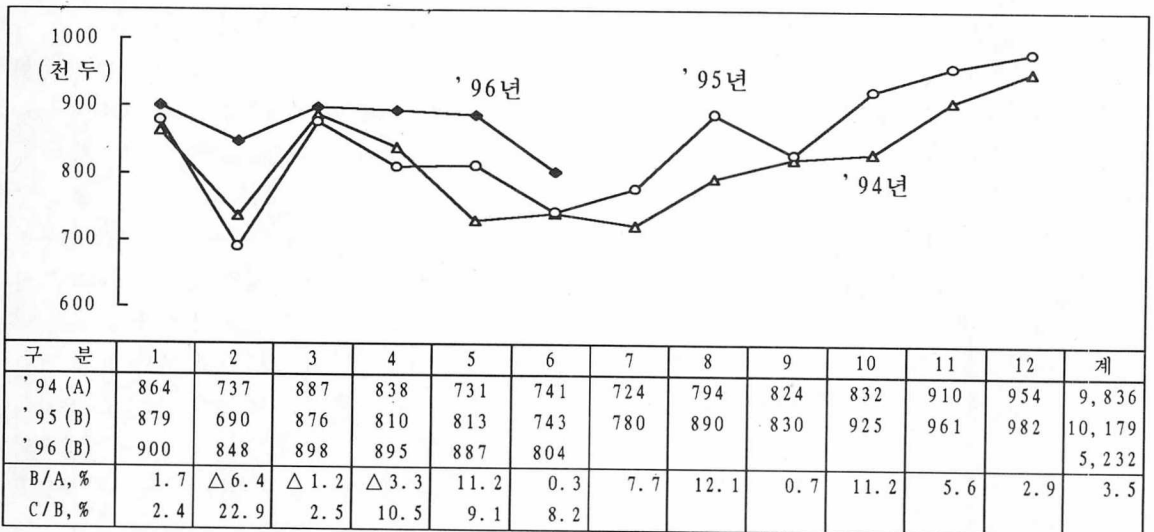


따라서 돈육 대일 수출이 오히려 수입을 능가해 규격돈 부족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2) '96년 돼지고기 수급 전망

'96년 돼지고기 총 수요량은 '95년에 비해 8.6%가 늘어난 732천 톤이 예상되며, 이 중 수출을 뺀 국내수요는 702천톤으로 지난해에 비해 6.1%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1인당 소비량은 지난해 14.8kg에서 4.7%가 늘어난 15.5kg가 될 전망이다.

〈표 3〉 전국 돼지 도축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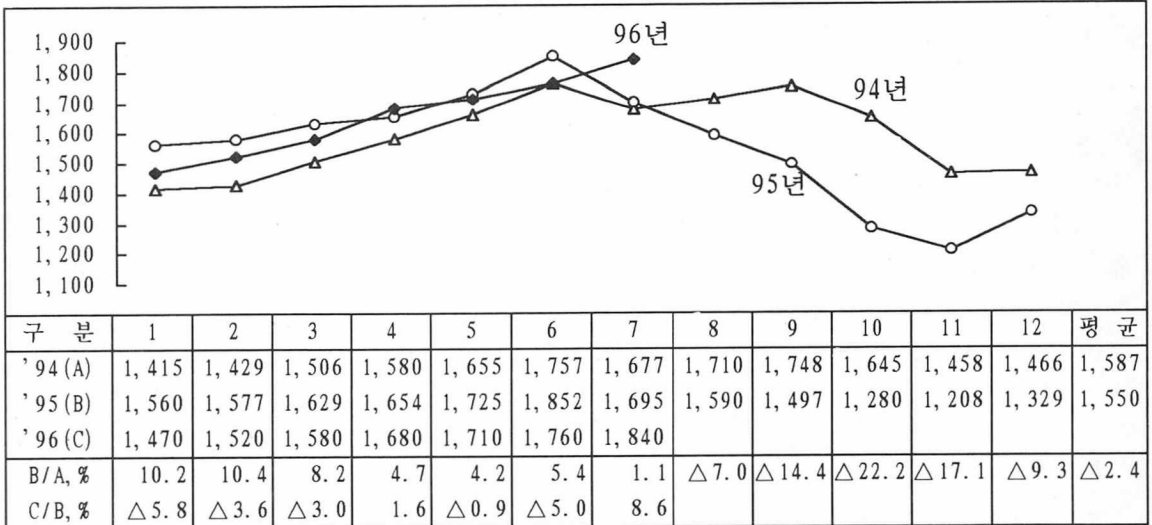
〈표 4〉 '95년 수급실적 및 '96년 수급 전망

구분	수요			공급						과부족 (B-A)	1인당 소비량 (kg)	자급률 (%)
	내수용	수출용	계(A)	국내산	전년 이월	MMA	수급 조절용	계	합계(B)			
'95년 실적	661.7	14.3	676.0	639.3	6.7	17.5	16.9	41.1	680.4	4.4	14.8	96.7
'96년 전망	702.1	30.0	732.1	694.3	4.4	23.4	10	37.8	732.1	-	15.5	98.9
증감률 (%)	6.1	109.8	8.3	8.6		33.7	-40.8	-8.0	7.6		4.7	

자료 : 농림수산부

〈표 5〉 산지 돼지값 동향(전국)

(단위 : 원/kg)



공급량은 국내산 694천 톤과 수입육 38천 톤을 합하여 총 732천 톤으로 지난해에 비하여 7.6%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내산 공급량이 사육두수의 증가로 지난해보다 8.6% 증가한 데 힘입은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상승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7월 하순부터 약간씩 하락세를 보여 8월 1일 현재 산지가격은 17만 7천원(100kg기준)으로 7월 평균가보다 3.8% 떨어졌다.

3. 가격 동향과 전망

(1) 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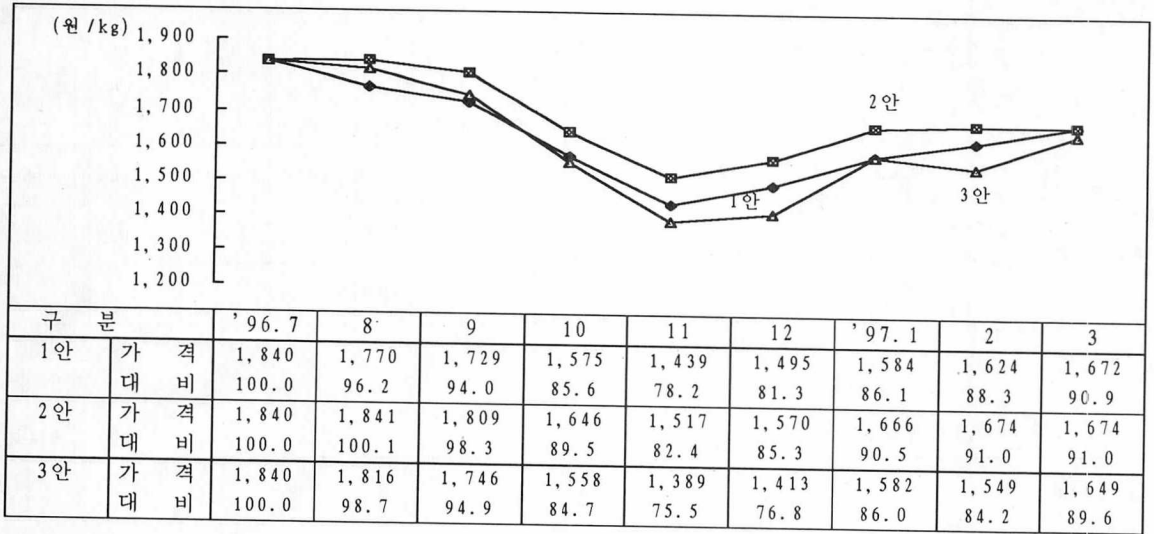
지나해 하반기에 일시적인 하락세를 보였던 돼지가격은 금년 들어 광우병 파동과 행락철 소비 증가, 대일 돈육 수출의 호조에 힘입어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 7월 중순경에는 19만까지

(2) 가격 전망

앞으로 돼지값은 내림세를 보인 후 연말경 상승이 예상된다.

공급 측면에서는 봄철에 생산, 수태된 자돈이 큰 질병 피해 없이 하반기 출하물량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MMA물량 23천톤과 수급조절용 돼지고기 10천톤 중 7월까지 대략 17,500여 톤이 수입 판매된 것으로 추정되어 앞으로 15천

〈표 6〉 돼지 가격 예측



톤 정도가 주로 8~9월에 방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6월 가축통계에 의하면 총 두수가 늘지 않았고 모돈 두수도 소폭이나마 감소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어 예상보다는 출하물량이 적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수요측면에서는 소값 하락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수입육 방출 조정은 돼지고기로의 대체 수요 증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은 7월 1일부터 이듬해 3월까지 일본의 S.G 발동으로 예상보다 둔화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산지 돼지값은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3가지 안을 제시했지만 이 중 1안의 추세를 따라가지 않을까 예상된다. 즉 8월을 정점으로 하락하지만 당분간은 어느 정도 가격지지가 되다가 봄철에 생산된 자돈이 본격적으로 출하가 될 것으로 보이는 10월부터는 추석 후 소비 부진까지 겹쳐 내림세를 보여 11월에는 최저를 기록한 후 연말경에는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 예측은 주어진 통계자료에 의한 분석 방법 중의 하나임으로 사후적으로는 실제치와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양돈경영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바란다.

